

1장 학문으로서의 교의신학

? 교의신학은 어떤 학문이며 어디에 서야 하나?

교의란 교회가 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믿어야 할 진리다. 신학을 감정이나 종교 연구로 줄이면 '하나님이 참으로 계신가'라는 물음을 피하게 된다. 그래서 교의신학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알려 주신 지식을 질서 있게 정리한 학문이다. 재료는 성경·교회·신자의 경험이지만 토대는 오직 성경이고, 신앙은 샘이 아니라 수로다. 방법은 하나님에서 시작해 그분의 일을 거쳐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며, 결국 찬양이다.

용어 먼저

교의(도그마)	하나님 권위에 근거해 교회가 믿어야 할 것으로 고백하는 진리
로키(loci)	성경 진술을 찾아보는 '자리', 신학 주제를 가리키던 옛말
계시	하나님이 행위와 말씀으로 자신을 사람에게 알려 주심
외적 토대(principium externum)	신학이 서는 바깥 근거. 바빙크는 성경 하나 뿐이라 함
자증(αὐτοπιστος)	성경이 다른 보증 없이 스스로 믿을 만함을 증명함
종합적-발생적 방법	교회 교리에서 거슬러가지 않고 성경에서 출발해 전개함
송영(doxology)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노래. 교의신학의 최종 성격

구조도 · 하나님에서 하나님께로



핵심 주장

1. 교의는 교회가 승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서기에 교의다.
2. 교의 없는 기독교는 없다. 교의를 거부하는 것도 또 하나의 교의다.
3. 기독교는 하나님 지식이 참이냐에 따라 서거나 넘어진다.
4. 전제 없는 순수 객관 학문은 없다. 신학자는 신자로서 일한다.
5. 신앙은 하나님 지식의 원천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기관이다.
6. 배움의 순서로는 교회가 먼저지만, 논리의 순서로는 성경만이 토대다.
7. 교회에서 끊어진 사람은 마른 가지와 같아 신앙의 진리를 잃는다.
8. 삼위일체·기독론·언약 중심 구성보다 하나님 자신이 출발점이어야 한다.

성경 근거

고전 2:14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성령의 일을 알 수 없다
신 4:1	진리의 지식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서 온다
사 8:20	사람이 아니라 객관적 계시가 기준이다
요 5:39	성경이 진리를 아는 길을 가리킨다
엡 3:18	그리스도의 사랑은 성도의 교제 안에서 깨닫는다
롬 11:36	만물은 하나님에게서 나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눅 2:14	교의신학의 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

오해 → 바른 이해

× 교리보다 체험이 중요하다. 교의는 필요 없다.	✓ 교의 없는 신앙은 착각. 모든 신앙은 교의를 전제한다.
× 하나님은 알 수 없고 믿을 수 있을 뿐이다(칸트).	✓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신을 알리셨기에 참 지식이 가능하다.
× 전통은 버리고 성경만 순수하게 읽으면 된다.	✓ 누구나 안경을 끼고 읽는다. 교회 전통이 오히려 더 충실했다.
× 신학은 중립적 종교 연구로 충분하다.	✓ 묘사만으론 '하나님이 계신가'에 답 못 한다. 계시가 먼저다.

“교의신학은 계시에 묶인 하나님 지식의 체계이며 결국 찬양이다.”

💬 나는 교리를 '머리 지식'으로 밀어내고 느낌만 믿고 있지 않은가?

💬 나의 성경 읽기는 교회의 교제 안에 뿌리내려 있는가?

빛다방 학습 노트 · 헤르만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요약한 것입니다(원문 미전재).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
[youtube.com/@빛다방](https://www.youtube.com/@빛다방)